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다른 교과서의 교육내용 관련성 분석

김 지 호* · 이 연 속**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1)

Comparison between the Contents of '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Home Economics Textbook and Those of Other Subject Textbooks of Middle School

Kim, Ji Ho* · Lee, Yon S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ontent of '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 with other middle school subject textbooks. The middle school textbooks of Korean, Mathematics, Social Science, Science, Ethics, Technology,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were analyzed how the contents of these textbooks were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those of '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Home Economics textbooks.

The contents of 8 subject textbooks except Music were related with those of '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Home Economics textbooks. The content of Social Science was the most similar to '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Home Economics textbooks although perspectives and focus were somewhat different. The unit of Home Economics textbook most related with contents of other subject textbooks was 'Our Consumption Lives', while 'Management of Time and Work for Adolescence' is the unit of Home Economics textbook least related with contents of other subject textbooks. However, similar contents were dealt with different focus and depth in textbooks according to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

1) 교신저자: 이연속(E-mail: yonsuk@korea.ac.kr)

주제어(Key Words) :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자원관리와 환경' 영역('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Home Economics Textbook), 다른 교과서의 교과서(Other Subject Textbook), 교과서 내용분석(Analysis of Content of Textbook)

I. 서 론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일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기르는 것을 중시하는 교과로서 인간의 실생활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가정교과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생활환경을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시하므로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다루는 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모든 내용은 인간 생활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통합 학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현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의 내용은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여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 소비생활, 주생활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른 교과와 관련성이 있다. 가정과 교육내용과 다른 교과와 교육내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구성과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정된 가정과 교과 내용이 다른 교과와 내용과 연계되어 학습된다면 학습 효과의 증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상 다른 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교과의 배열이 다른 교과의 제시 순서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알맞게 조절해야 하는데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 각 교과별의 기본 영역을 토대로 할 뿐 다른 교과와 내용을 비교하여 배열 순서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상 교과마다 서로 중복되는 경향이 생기고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서 오히려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도 각 교과와 중복되는 주제나 단원을 알맞게 조정하여 학습자의 중복 학습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과

정 관련 종사자들과 각 교과와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전공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교과와의 내용을 전공교과와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가정교과에서는 가정교과와 다른 교과와 내용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소수(정인옥, 1993; 정정희외, 1998; 이영숙, 1999) 발견되고 있지만, 모두 6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서와 타 교과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정희등과 이영숙의 연구는 가정교과의 전 영역과 타 교과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고, 정인옥의 연구는 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의 내용과 타 교과의 살펴보고 있어 '자원의 관리와 환경' 단원의 내용과 타 교과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이 다른 교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나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교사들의 수업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와 교육과정상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시도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 연구 고찰

1. 교과서 분석기준과 관련 선행연구

교과서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주제에 따라 교과서 분석 기준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한 박상치(1987)의 연구에서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 편찬 기준으로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외적 기준으로는 저자, 표지, 분량, 크기, 지질, 색도, 서문과 범례, 활자, 편집, 제목달기, 색인, 제본방식이 있으며 내적 기준으로는 내용 비판, 내용 진술, 내용 조직방식 그리고 편찬기준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의 단원 도입과정과

학습문제 제기, 탐구과정, 삽화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중학교 가정 교과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차미경(1991)의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크기와 중량, 활자, 커버, 지질, 색도, 단, 자료구성 교과서의 구성체제, 등의 외형적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영역의 구성 및 비중, 실험 실습 수 및 주제, 그림 사진 및 표의 수 등의 교과서 영역과 내용적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고등학교 과학의 '생물의 영양'과 가정의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중복된 내용을 조사한 정인옥(1993)의 연구에서도 분석기준으로 중복되는 용어와 표, 그림, 중복되는 내용, 중복되는 시간 등의 내용적인 면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8종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박정원(1995)의 연구에서는 신·구 가정과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교육과정 비교와 교과서 집필진 구성, 교과서 구성, 각 영역별 내용을 그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윤인경(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를 크게 교과서의 체제와 교과서의 영역 및 내용의 2가지 평가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 단원별 체제, 교과서의 집필자 구성과 교과서의 영역 및 내용의 4가지 기준으로 출판사별 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는 전체 쪽수, 결표지, 면지, 화보,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이 해당되며 단원별 체제는 단원표지, 주제의 도입, 정리 및 평가, 단원 정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정, 체육, 과학 교과서의 식생활 내용을 분석한 이영숙(2000)의 연구에서는 문장의 행수와 표, 그림, 사진, 활동·연습문제 수 등의 양적 기준과 설명 유형이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질적 기준으로 비교 연구를 하였다.

박수림(2000)의 연구에서는 2~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의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내의 성교육 내용에 대해 분석하면서 세부영역을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한 후 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차지하는 쪽수와 그림, 표를 개수로 표시하여 새 교육과정에 수용되어야 할 성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내용 및 삽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손태룡(2002)의 연구와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소비자 교육 내용을 분석한 박경화

(2003)의 연구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생활교육 분야 내용을 분석한 현지혜(2003)의 연구도 내용 체제에 기준을 두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이 분석기준은 크게 외적 체제와 내용 체제로 나눌 수 있으며 외적 체제는 전체 쪽수, 머리말, 목차, 부록, 단원 표지, 교과서의 크기와 중량, 활자, 지질, 색도, 단, 저자, 분량 등이 이에 해당하며 내용체제는 주제, 내용 진술, 내용 조직방식, 영역의 구성, 설명 유형이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의 질적 기준과 비중, 실험 실습 수, 표, 그림, 사진, 활동·연습문제 수 등의 양적 기준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영역의 구성과 비중, 학습활동, 그림, 사진, 표 등의 양적 기준에 기초하여 개념, 주제 등의 질적인 내용 체제에 기준을 두고 분석하였다.

2. 교과서 분석의 관점과 관련 선행연구

이연숙(2001)의 관점에 따르면 교과서 분석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본 역사적 관점의 분석방법이다. 전경선(1999)은 1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중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단원의 외형적 체제와 내형적 체제를 비교하였으며, 박수림(2000)은 중학교는 3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는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의 가정과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이연숙(2001)은 1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분야의 구성체제와 지도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교과서가 여러 종류 출판되는 경우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중학교 1학년 8종 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신상옥(1995)의 연구가 있는데 교과서의 영역별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식생활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의생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두 단원의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교과서의 그림, 사진, 표의 수를 비교한 결과 의생활, 식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가정 교과서 8종을 모두 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한 윤인경(1996, 1996a, 1997)의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 속한다. 장현숙(1997)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등학교 6종 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교과서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편찬 제도와 발행·공급제도 측면을 비교한 박상치(1987)의 연구가 있으며 한국, 스웨덴, 미국, 자유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과 각 영역별로 교육내용을 비교한 채정현(1989)의 연구도 있다. 차미경(1991)은 우리나라의 제 5차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와 일본, 미국, 영국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과정의 비교를 주 내용으로 하며 동시에 교과서의 비교 내용이 포함된 이교탁(1998)의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육내용 비교 연구도 국제적 관점에 속하는 연구들이다.

넷째, 가정 교과서의 다른 교과서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교육 내용의 관련성과 중복되는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이 관점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정정희·이송자·유태명(1998)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중학교 제 6차 교육과정의 1, 2, 3학년 가정 교과서 중 임의로 1권을 선정하여 중학교 도덕, 국어, 사회, 국사, 과학, 수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 한문 교과서를 모든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중학교 1학년 가정 교과서 8종, 중학교 1학년 체육 교과서 8종,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8종에 중복되는 내용을 비교한 이영숙(1999)의 연구도 있으며, '생물의 영양과'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학 I(상)과 가정교과의 중복된 내용을 조사한 정인옥(1993)의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교과에서는 실업고등학교의 수학교재와 타교과와의 연계성에 관한 조태평(198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가정교과서의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교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경규희(2001)는 이연숙(2001)의 교과서 분석

관점에 3가지 관점을 추가하였다.

첫째, 학교급별·학년별 연계성을 분석하는 관점은 같은 교과와 교과서 내용이 학교급별, 학년별로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민경숙(1991)의 연구도 이런 관점에서 제 5차 교육과정 당시의 국민학교 실과와 중학교 가정 및 기술·가정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3, 4학년 실과 교과서 1종과 중학교 가정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내용 체계 및 연계성을 조사 분석한 김혜자와 2인(1997)의 연구가 있다.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이지영(2002)의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 해당한다.

둘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관점은 정미경(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창의성 신장 여부를 주제로 하여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가정 교과서 8종에서 의생활 영역의 용품 만들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을 분석한 최정혜(2002)의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 해당된다. 이승신·김민경·조정자(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 소비자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소비자교육은 2학년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1학년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한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 제 5차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김수현·정도화(1991)의 연구가 있었으며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문제점을 각 학년별로 구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류청산(1999)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이러한 관점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연숙(2001)이 제시한 네 번째 관점에 해당하는 분석관점을 가지고 가정교과서의 내용을 다른 교과와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교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 1종 교과서인 도덕, 국어 교과를 제외하고는 각 과목당 수십 종이지만, 교재내용 및 주제는 동일하므로 연구자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전학년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가정과 이외의 교과목들도 한 종류의 교과서로 국한시켰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과 가정이 기술·가정으로 한 과목이지만 과목의 성격이나 교육목표 등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교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어과 교과 내용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교과서는 < 표 1 > 과 같다.

< 표 1 > 분석대상 교과서

순서	교과명	저자명	출판사
1	기술·가정	성화경 외 9인	동화사
2	국어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교육 인적 자원부
3	도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편찬 위원회	교육 인적 자원부
4	사회	황재기 외 10인	교학사
5	수학	이준열 외 4인	(주)도서출판 디딤돌
6	과학	이광만 외 16인	(주)지학사
7	체육	김의수 외 4인	(주)보진재
8	음악	서한범 외 3인	도서출판 태성
9	미술	고승혜 외 4인	(주)두산

2. 분석방법

1) 관련 내용의 선정 과정

- ① 중학교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서 중 가정 부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에 포함된 '자원의 활용과 환경',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우리들의 소비생활' 3개 중단원의 용어, 개념, 원리, 내용을 모두 추출하였다.

- ② 중학교 제 7차 교육과정의 전 교과, 전 학년 교과서에서 기술·가정 교과서 중 가정 부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관련된 용어, 개념, 원리, 내용을 모두 추출하였다.
- ③ ②에서 추출된 내용을 선별하여 가정 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에 맞추어 소단원별로 분류하였다.
- ④ 관련 교과의 내용을 소단원별 가정 교과서 내용에 맞추어 주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의 기준

- ① 동일한 학습주제이지만 교과별 성격에 따라 학습의 초점의 차이가 있는 경우, 가정 교과내용과 어

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석하였다.

- ② 동일 개념을 다룰 경우에도 교과별로 수용하는 관점이 다를 경우에는 해석을 붙였다.
- ③ 기타 단순용어나 개념이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국어교과와의 내용 비교

국어교과는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 정서를 기르는 교과이다. 이런 교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어교과서의 내용과 가정교과 중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먼저 첫 번째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국어교과 2학년 1학기 교과서의 내용 중 '어떻게 읽을까' 단원을 학습한 후 보충·심화활동에서 제시된 광고문의 내용이 '어머니의 저녁식사'로써 식사할 때 먹을 만큼 음식이 차려지고 모두 남김없이 먹어야, 남긴 음식물을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사라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환경보전의 주제를 띄고 있는 글이긴 하지만 주제의 전달과 더불어 광고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글읽기 능력의 향상에 학습의 초점이 있다. 주제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둔 가정교과의 초점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중단원에서는 국어교과와 직접적인 관련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세 번째 '우리들의 소비생활' 중단원과 관련된 내용은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비판하며 읽기' 단원의 마지막 심화·보충활동에 나와있는 지문으로 인터넷 쇼핑물의 객관적이지 않은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과장된 광고의 근거를 찾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보는 기준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이 내용에 더불어 다이어트 광고문을 제시하고 이 광고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적용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점이 다른 글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학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듯 위의 국어교과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됨을 학습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교과에서는 정보를 선별하여 올바른 자원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도덕교과와의 내용 비교

도덕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이다. 도덕교과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은 2개의 소단원이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모두 2학년 교과서로서 중단원인 '생활 속의 경제 윤리'에 속해 있다. 세부적인 소단원명은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일하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생활'이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첫째,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과 도덕교과의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비교할 수 없었으며 둘째,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중단원에서는 도덕교과의 '일하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생활' 단원과 약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덕교과에서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가정교과에서는 청소년의 일에 초점을 두어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계획하고, 일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에 실행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뒷정리와 평가·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의 수행에 관련된 방법적인 측면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우리들의 소비 생활' 중단원에 관련된 내용은 도덕 교과의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단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비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소비와 충동구매로 얼룩진 우리의 소비형태를 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사례를 통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계획을 꼼꼼히 세워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각종 선전과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와 절약하는 생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은

물론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단원에서 '함께 하기 1'코너에서는 잘못된 소비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일상 생활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과소비를 했거나 지나치게 낭비 하였던 경우를 찾아보고, 앞으로 고칠 점에 대한 다짐을 써 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함께 하기 2'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체험활동으로 충동적이고 불필요한 상품 구입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체험해보고 소감문을 써보는 것으로, '함께 하기 3'에서는 광고의 충동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한 상품의 광고 속에 담겨 있는 충동적 소비의 요소를 분석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처럼 도덕교과와 가정교과의 소비생활 관련 부분은 주제까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동일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주제를 두고도 도덕교과는 소유와 무소유의 개념까지 연계시키는 욕망 절제의 삶이 최고임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가정교과는 생활 속의 소비자인 우리가 책임 있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과간의 개념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3. 사회교과와의 내용 비교

사회교과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과이다.

사회 교과는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다른 교과목에 비해 소단원별 주제가 많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3학년에서 내용 면에서도 많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첫 번째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에 관련된 사회교과의 내용으로는 1학년 교과의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지방' 단원에서는 해안에 산업 단지가 건설되고 인구

가 늘면서 수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유조선 사고,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등의 오염을 통해 물고기의 종류나 수도 감소하고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에 대한 보충으로 '바다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아니다!'는 제목 아래 청정 수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염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바다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이 절실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심화활동으로 '자꾸 오염되는 바다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신문 기사가 제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1학년 교과내용에서는 여러 나라들의 환경과 자원의 특색을 이해하는 단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사회교과에서의 환경은 지역적 특색을 지닌 자연 환경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자원은 석유, 철, 석탄 등 협소한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단원인 '관광 자원이 풍부한 관동지방'중 '자원을 활용한 공업의 발달'이나 '주목받는 관광 자원'등 총 7개의 소단원에서 자원과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나 가정교과의 소단원 학습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학년 사회 교과 내용 중에는 '자원의 이용과 자원 문제' 단원 내에 세계의 주요 자원과 우리나라의 자원 수입, 자원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세 소단원에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세계의 주요 자원 단원에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각종 자원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 고갈 문제에 대비해 재활용이나 다양한 대체 에너지의 이용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 수입 단원에서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이라는 활동하기 코너를 이용하여 우리 집의 환경가계부를 작성해보고 자기 평가를 통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가정 외에 기업이나 국가에서 자원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자원의 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환경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교과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에서의 차이점은 사회교과의 내용에서의 자원의 개념이 가정교과의 자원의 개념보다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교과에서는 자원을 물질 자원의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에너지 자원이나 쌀, 밀 등의 식량자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는 측정 가능한 비인적 자원(물질적 자원) 외에도 측정 불가능한 인적 자원, 특히 시간자원에 교과 내용에서 같이 다루었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는 이러한 방대한 자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가정에서의 자원을 그 예로 들어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환경 영역에 대한 내용도 사회교과에서는 환경오염에 피해를 알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정교과에서도 사회교과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고 실천해 보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다른 단원보다도 환경영역에 관련된 내용은 개념과 소단원 학습주제 및 최종 수업목표가 동일하나 사회교과보다 가정교과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생활에 실천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중단원과는 2학년 사회교과의 '인간의 사회생활 단원' 중 '지위에 따른 올바른 역할 수행하기' 심화활동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4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정교과와 관련 있는 것은 세 번째 사례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부가 초등학생인 자녀의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만 집안일에는 신경을 못쓰기 때문에 살림이 엉망이 되곤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단원을 학습한 후 제시하면 학습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세 번째 '우리들의 소비생활' 중단원과 관련된 사회교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교과 3학년 단원 중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단원의 '인간과 경제생활과 경제문

제'와 '합리적인 경제활동' 소단원과 '민주 시민의 경제적 역할' 중단원이다.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단원에서는 인간의 경제생활의 의미와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면서 자원의 희소성 개념에 대해 제시하였다. 가정교과의 '우리들의 소비생활' 단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원은 '민주 시민의 경제적 역할' 단원이다. 민주 사회에서 바람직한 소비자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하기 코너에서는 우리 집은 어느 품목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 조사해 보아 우리 집 소득의 지출 구조를 알아본 다음 도시 가게 월 평균 소득의 지출구조와 비교하여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심화활동에는 국산품 애용 운동과 더불어 바람직한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신문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자로서의 행동원칙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교과에서는 넓은 개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비자 양성을 초점으로 하였지만 가정교과는 중학생인 청소년의 소비생활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사회교과보다 가정교과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만큼 그 깊이도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교과에는 올바른 소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환불이나 교환요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기타 법률적인 지식이나 절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3학년 소비생활과 관련한 사회교과 내용을 학습할 때 2학년 때 이미 학습한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내용을 관련시켜 보충·제시하면 학습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4) 수학교과와의 내용 비교

수학교과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수학교과서는 1, 2학기용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학년과 학기(가는 1학기, 나는 2학기)를 붙여 교과서의 이름을 붙였다. 따라서 7학년의 1학기 교과서는 7-가, 2학기 교과서는 7-나 교과서가 된다. 이러한 수학교과서의 내용에서는 단원별로 생활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 낸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 2학년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 첫 번째,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에서는 1학년인 7-가 교과서의 탐구활동 내용에서 비인적 자원의 대표적인 금전의 저축에 대한 함수의 활용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7-나 교과서의 누적도수의 탐구활동 내용은 비인적 자원 중 자연 환경 자원에 속하는 물의 소비량의 자료를 정리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영역에 관련된 내용은 2학년(8-가) 교과서 내용 중 연립방정식을 통해 각 나라별 유해 폐기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와 음식물을 하수도로 흘려 보냈을 때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과 BOD를 이용하여 버린 라면 국물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교과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실천적인 태도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수학교과는 음식물을 버리게 되었을 때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하는 등 수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었다.

수학 교과서 내용 중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2학년 8-가 교과서로써 '경제적인 소비생활! 일차부등식이 한 몫 한다.' 라는 부제목 아래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해서 일차부등식을 이해·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세 번째 소단원인 '우리들의 소비생활' 단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수학교과는 교과서의 많은 부분이 문제를 통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계산능력의 향상에 할애되어 있어 가정교과의 성격과 목표와 상당히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2학년 1학기 수학내용을 배우기 전에 가정교과서 내용 중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을 먼저 학습하게 된다면 문제 속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줄고 서로 관련지어 설명된다면 학습효과가 더욱 증대되

어질 것이다. 3학년 수학교과의 내용은 가정교과의 '자원의 활용과 환경' 단원과 개념과 내용 면에서 관련성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5. 과학교과와의 내용 비교

과학교과는 국민의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과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은 2학년 과학교과의 '혼합물의 분리' 단원에서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본문의 학습내용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보를!!', '스스로 알아보기', '보충활동'등을 통한 보충설명의 차원에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정보를!!'에서는 환경 운동 연합 단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스스로 알아보기'에서는 가정교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단원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재활용 가능한 분류 번호 표시가 제시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충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쓰레기에서 자원'의 내용은 쓰레기는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쓰레기 양을 줄이고, 둘째,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구체적인 실험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하는 과학교과의 성격을 그대로 실현한 교과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교과와 가정교과는 관련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가정교과 내용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태도를 배양하는데 그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중단원에서는 3학년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구체적으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의 '일 관리'란 단순히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일들을 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계획과 준비, 실행, 뒷정리, 평가와 반성의 5단계를 통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며 특히 가사노동을 할 때 효율적인 작업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실제 실행해보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세 번째 가정교과의 '우리들의 소비생활' 중단원에서는 3학년 과학교과 중 '전기 기구에서 소비하는 것은'이라는 단원과 약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을 계산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요금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이 내용은 더 나아가 올바른 소비자로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기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좋은 소비자 정보의 원천으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2학년 때 학습하는 가정교과의 '우리들의 소비생활' 단원 내용을 바탕으로 3학년의 '전류의 작동' 단원이 관련되어 학습된다면 그 학습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6. 기술교과와의 내용 비교

기술교과는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체험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하여 21세기를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교과이다.

기술교과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의 관련성이 있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그 중 환경에 대한 부분만 약간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 기술의 발달과 미래 단원 중 소단원 '기술의 발달'

부분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생활에 편리성과 안락함 등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환경의 훼손이 심각해져서 자연의 자정능력까지 잃어가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에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으로 분류하고 환경의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천방법을 조사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은 기술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환경 오염이나 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간략히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도 위에서 언급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2학년 '운동 물체 만들기' 단원에서는 보충학습에서 버리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운동 물체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고장난 헬스 자전거와 탈수기를 벨트, 체인 등의 동력 전달 장치를 이용하여 운동과 탈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도 환경 절약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가정교과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보충학습 및 부분에서는 전동기와 건전지의 사용방법 중 건전지를 다 쓰고 나서는 분리 수거하여 배출해야 함을 그림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술교과에서는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단원별로 기술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가정교과의 내용을 참고로 활용하여도 유용할 것이다.

7. 체육교과와의 내용 비교

체육교과는 움직임 육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교과이다. 가정교과와의 관련있는 체육교과는 1학년 교과 내용 중 '우리가 가꾸는 환경' 단원이다. 환경 오염의 방지 대책으로 대기 오염의 방지 활동과 수질 오염의 방지 활동, 소음의 방지 활동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해 놓았다.

체육교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산

업 폐기물, 기계의 소음 등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가꾸고 보전해야 함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정교과는 우리가 가정 생활을 꾸러감에 있어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적 태도와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체육교과에서는 2학년의 '식품과 건강' 단원에서 소비자 역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올바른 식품 관리와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식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교과에서는 이처럼 가정교과에서의 소비자의 개념보다 협의의 소비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과 역할, 소비자 정보의 활용 방안, 구매 의사 결정 방법, 소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습득하여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태도를 기르는 가정교과에서의 초점과는 약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8. 미술교과와의 내용 비교

미술교과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미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유사한 내용은 2학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디자인' 단원 중 '재활용의 지혜' 내용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 줄 뿐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의 재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 환경과 풍요로운 미래 생활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자원을 재활용하여 만든 작품들의 사진이 내용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가정교과의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 중 다섯 번째 소단원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 단원 마무리

에 '재활용소재를 활용하여 장식품이나 도구 만들기' 활동과제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찾아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고 이를 전시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에서는 요구르트를 이용한 개집, 헌옷을 이용한 가방, 병뚜껑을 이용한 시간표 등 여러 작품들의 사진까지 제시되어 있다. 가정교과의 이러한 활동과제를 미술교과에서 수업에서 활용한 것이 바로 '재활용의 지혜' 단원이다.

그리고 1학년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생활' 단원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그 특징과 느낌을 말해보아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구성하였으며 2학년 '자연과 조형물의 구조' 단원에서는 우리의 생활에 활용되는 자연미의 구조를 찾아보아 우리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였다. 3학년 '미술과 생활' 단원에서도 생활 속의 조형물을 통하여 미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표해보는 토의학습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미술교과는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학습주제가 명확히 일치되어 있지 않음 뿐이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 근접환경, 광역환경에서 미적인 자원을 찾아 미술교과와 관련짓는 내용이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술교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자원이 창작활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원을 포함하는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여 우리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 미술교과 학습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자원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가정교과의 초점과는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9. 음악교과와의 내용 비교

중학교 1·2·3학년 음악교과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내용과 개념 등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 중 가정 부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 내용과 다른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사회교과와는 특히 3학년 내용과 많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교과에서는 공업의 발달, 자원의 개발로 인해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의 소비생활' 단원은 사회교과의 '민주 시민의 경제적 역할' 단원과 소비자 관련 내용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교과에서는 자원 개념을 물질 자원의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가정교과에서는 물질 자원 외에도 측정 불가능한 인적 자원, 즉 시간 자원도 교과 내용에서 같이 다루었다는 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 도덕교과의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단원과 가정교과의 소비생활 관련 부분이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주제를 두고도 도덕교과는 소유와 무소유의 개념까지 연계시키는 욕망 절제의 삶이 최고임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가정교과는 생활 속의 소비자인 우리가 책임 있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과 간 개념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3) 과학교과는 에너지 자원, 쓰레기 자원 등의 문제를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하는 점에서 가정교과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가정교과의 내용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적 태도를 기르는데 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4) 국어 교과에서는 환경과 소비생활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지문이 제시되어 있었다. 국어 교과에서는 글읽기 능력의 향상에 학습의 초점을 두어 환

경과 소비생활에 관련된 글을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정 교과의 초점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어교과는 다른 교과와의 관련 있는 글을 활용하여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됨을 학습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 교과 '우리들의 소비생활' 영역에서는 정보를 선별하여 올바른 자원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등 주제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5) 수학교과에서는 교과의 많은 부분이 문제를 통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계산능력의 향상에 할애되어 있었는데 유해 폐기물의 양을 구한다던지 매달 저금한 저금액의 계산 등 가정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은 가정 교과의 내용을 학습한 후 제시된다면 학습효과는 더욱 증대되어질 것이다.
- 6) 기술 교과에서는 환경 부분에만 약간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도 기술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환경 오염이나 환경보전에 관련해서는 간략히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기술 교과에서는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단원별로 기술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가정교과의 내용을 참고로 활용하여도 유용할 것이다.
- 7) 체육 교과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정교과에서의 소비자의 개념보다 협의의 소비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과 역할, 소비자 정보의 활용 방안, 구매 의사 결정 방법, 소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습득하여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태도를 기르는 가정교과에서의 초점과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 8) 미술 교과는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학습주제가 명확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미술 교과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자원이 창작 활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원을 포함하는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여 우리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가정교과와 관점은 비슷하지만 자원과 환경의 활용 측면에서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9) 중학교 음악교과와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내용과 개념 등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다른 교과서의 교육 내용 관련성을 살펴본 바 국민공통기본교과(영어과 제외) 9개 교과 중 8개 교과의 내용이 가정 교과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가장 다른 교과와 관련성이 높은 가정교과의 내용은 '자원의 활용과 환경' 단원 중 환경 부분과 '우리들의 소비 생활' 단원의 소비자 관련 내용은 주제까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단원의 내용이 다른 교과와 그 관련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교과마다 그 성격에 따라 같은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그 깊이와 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가정교과와 다른 교과서의 내용 관련성 분석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효율적인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시 교과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구성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동일 학년에서 다른 교과와 내용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가정과 교사가 현장에서 가정교과서를 다룰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련부분을 숙지하여 타교과와 내용이 유사한 경우 타교과 교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중복되는 내용을 각기 다른 교과에서 배우게 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가정교과의 유일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수-학습이 가능 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만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술·가정

교과서 내의 다른 모든 영역과 다른 교과와의 관련 내용 분석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의수 외 4인(2003). 중학교 체육 (1), (2), (3). 서울 : (주)보진재.
- 김혜자 외 2인(1997). 초·중등 교과서 분석 연구 : 제 6차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0(1). 15-28.
- 고승혜 외 4인(2003). 중학교 미술(1), (2), (3). 서울 : (주)두산.
-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경규희(200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 분야 단원의 변천과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청산(1999). 현행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체제분석과 전형적 모형 개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16. 147-185.
- 민경숙(1991). 가정과 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치(1987).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체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림(2000).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원(1995). 중학교 8종 가정과 교과서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조(2003).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와 컴퓨터 교과서의 컴퓨터 단원의 내용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운(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3). 중학교 도덕 (1), (2), (3).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서한범 외 3인(2003). 중학교 음악 (1), (2), (3). 서울 : 도서출판 태성.
- 성화경 외 9인(2003). 중학교 기술·가정 (2). 서울 : 동화사.

- 손태룡(2002).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내용 및 삽화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경(1996).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8(1). 79-91.
- _____(1996a).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I).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8(2). 53-64.
- _____(1997).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II).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9(1). 133-143.
- 이교탁(1998).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교육과정 비교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만 외 16인(2003). 중학교 과학 (1), (2), (3). 서울 : (주)지학사.
- 이승신·김민경·조정자(2003). 7차 교육과정의 학교 소비자 교육 내용분석.
- 이승철(2002). 초등 사회과 교과서 삽화자료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200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분야 단원의 변천과정 분석(1).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3(1). 73-91.
- 이영숙(1999). 중학교 교과서 식생활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열 외 4인(2003). 중학교 수학 7-가, 7-나, 8-가, 8-나, 9-가, 9-나. 서울 : (주)도서출판 디딤돌.
- 이지영(2002) 초등학교 실과와 중,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선(1999).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인간발달,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1998). 창의성 관점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10(1). 171-183
- 정인옥(1993). 고등학교 「과학 I (상)」과 「가정」 교과의 중복 내용 조사 : 「생물의 영양」과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이송자·유태명(1998). 중학교 가정교과와 다른교과의 교육내용 관련성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0(1). 77-94.
- 조태평(1989). 실업고등학교의 수학교재와 타교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미경(1991).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3(1). 113-129.
- 채정현(1989). 각국의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 한국, 스웨덴, 미국, 자유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200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4(1). 15-25.
-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2003). 국어 (1), (2), (3). 교육인적자원부.
- 현지혜(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생활 교육 분야 내용분석 : 제 7 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기 외 10인(2003). 중학교 사회 (1), (2), (3). 서울 : (주)교학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 중 가정 부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 내용과 다른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음악을 제외한 전교과 내용에서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사회교과의 3학년 내용과 많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다른 교과와 관련성이 높은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의 내용은 '자원의 활용과 환경' 중단원 중 환경 부분과 '우리들의 소비 생활' 중단원의 소비자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중단원의 내용이 다른 교과의 내용과 그 관련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각 교과마다 목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다루고 있는 초점과 제시방법, 내용의 상세성 정도가 교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